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	2021년 10월 4일(월) 총 4매		 환경특별시 인천
담당 부서	도서지원과	담당자	• 도서정책팀장 송해영 ☎440-4991 • 담당자 윤재동 ☎440-4994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영종~신도 연도교, 10월 5일부터 공사 시작

- 지난 1월 착공 후, 유관기관 인허가 행정절차 완료하고 본격 공사 착수 -
- 도서 지역 접근성 개선·균형발전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등 효과 기대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(영종~신도 구간) 공사를 10월 5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.

서해 남북평화 연도교는 영종~강화~개성·해주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으로 서해연안지역의 인적·물적 물류체계 확보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략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.

지난 1월 착공식 이후 우선 시공 분(현장 및 감리 사무실)과 동시에 군부대 협의·재해영향평가·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인허가 행정절차(2021년 6~9월)를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다.

행정안전부의 ‘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(2011~2030년)’에 반영된 사업

으로,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영종~신도 구간(1단계 : 2020~2025년)과 신도~강화 구간(2단계 : 2025~2030년) 공사가 2단계로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.

전상배 시 도서지원과장 “서해 남북평화 연도교가 건설되면 접경·도서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주민소득증대를 통한 균형발전기반 구축, 한반도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” 이라고 말했다.

<붙임> 1.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 위치도 및 조감도

2. 사진자료< 영종-신도 평화도로 건설 착공식, 2021.01.27.(수) >

위 치 도



조감도 또는 대상지역 사진



<영종-신도 평화도로 건설 착공식, 2021.01.27. (수)>



박남춘 시장 27일 용진군 신도선착장에서 열린 '영종-신도 평화도로
건설 착공식'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및 내빈, 주민들과
발파버튼을 누르고 있다